

그렇게도 무섭다면  
천연두를 알고  
계시나요?



천연두 또는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은  
지석영 선생이 우리나라에  
처음 예방주사를 시행하였고  
1980년 세계보건기구의  
두창 종식선언 이후  
국내에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창은 세계보건기구의 종식선언 이후  
출생한 인구집단에서는 면역이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고열, 피로감, 두통이나  
전신통, 구토가 동반되며  
농포성 발진 증상을  
보입니다.

2018.4.1

두창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당국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감염성이 매우 강해  
환자의 격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두창에 감염되었다면  
질병의 확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서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두창이 의심되면  
절대 타인과 접촉하지 말고  
즉시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1

3

3

9